

비구니스님 파워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이끄는 절반의 힘, 여성, 승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의 비구니 스님은 7천여명(전국비구니회 추산). 그동안 각종 행사나 언론에 얼굴을 내미는 것조차 꺼려온 비구니 스님들의 사회참여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아직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늦었지만, 축적된 비구니 스님의 역량을 불교 내외의 사회활동으로 회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전체 승단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스님. 이제 그 역량을 불교 내외의 사회활동으로 이끌어내야 할 때다. 사진은 97년 통도사수계산림 모습.〉

이제 '절반의 힘' 이 아닙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에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탁연 스님이 총무원 문화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비구니 스님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복지와 포교 분야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년 내 '비구니부'도 신설할 예정이다"고 밝히는 등 비구니 스님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완공된 전국비구니회관의 개원식이 올 가을에 열리는 것과 맞물려 내년에는 세계여성불교대회인 '사키아다타'가 전국비구니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물만이 아니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발휘하며 불교발전의

복지·NGO·인권 등 활동영역 넓혀
고속철·북한산 관통 반대, 환경운동 중심에
종무행정 참여·교단 내 지위 개선 과제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주요 활동 영역도 포교와 복지 뿐 아니라 환경, 인권, NGO활동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복지분야의 경우 최근 2년 사이에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안 스님 등 복지관 관장을 포함한 시설장이 6명이나 늘었다. 또한 천성산·금정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 선 지음 스님을 비롯해 불교 환경운동의 중심에도 비구니 스님들이 있었

다.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성역과도 같았던 군승과 경승의 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한층 왕성한 활동이 예상된다.

2002년 12월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스님은 약 1만 2천여명. 이 중 비구니 4천 269명, 비구니 4천 291명(사미 1천 768명, 사미니 1천 426명)으로 수치로 본다면 비구니가 비구보다 많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비구니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적

지 않은 장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계종 중앙총회의 비구니 총회의원 81명 중 비구니는 10명인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국장급 보직에도 비구니는 단 2명에 불과하고 교구본사 주지에 비구니 스님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역량에 비해 종단 행정 참여에 비구니의 역할이 미미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구니 스님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안은 없을까?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정각 스님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복지나 포교 분야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구니 스님들 스스로 다각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비구니 스님 특유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며 "비구니 스님의 역량이 사회적으로 발휘될 때 비로소 한국 불교계 전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수형 기자 snoopys@buddhapia.com

“수행·포교 본분에 매진해요”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

동국대 비구니 종비생 1호이자 어린 시절 포교의 선두 주자인 광우 스님은 세수 78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전국비구니회를 이끌고 있는 광우 스



것입니다.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자비와 부드러움, 포용성을 바탕으로 사회활동 참여 범위 넓혀 나가는 것 또한 숙제라 할 수 있겠지요.”

▲전국비구니회 관 개원식도 앞두고 계시지요?

“22년 간의 숙원

님을 만나 비구니의 역할과 전국비구니회관 운영계획, 세계여성불교대회 준비상황 등을 들어본다.

▲비구니 문화부장 탄생을 따라 비구니 스님의 대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탁연 스님의 문화부장 임명은 첫 번째 시도이니만큼 기대와 의미가 큼니다. 이번 시도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구니부 신설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부드러움·포용성 바탕 사회 참여 넓혀

“비구니회관 포교연구·교육의 장 될 것”

“비구니부” 신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인만큼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형식과 내용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차치 ‘비구니부’가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역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겠지요.”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은?

“비구니 스님의 능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최근 조금씩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상이 겹쳐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눈에 띄지 않게 역량을 축적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스님들의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에는 이미 대만과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번 대회는 사키아다타가 명실상부한 세계대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이 대회를 통해 한국 비구니 승단의 위상은 물론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지요.”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서울 대회는 ‘어떻게 불교를 실천할 것인가’와 ‘여성 불자의 역할’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대회 추진위원장을 맡은 본각 스님이 대회 기획부터 자금마련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정 중의 3일은 서울 비구니회관에서, 3일은 경주 불국사 등에서 진행됩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수형 기자



◇정일 스님 ◇혜주 스님 ◇정명 스님 ◇지율 스님 ◇정영 스님

비구니 스님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구니 스님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우선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육수종합복지관장 상덕 스님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안 스님, 청각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광림사 연화복지원장 해성 스님을 들 수 있다. 포교에 있어서는 30년 가까이 화성 신승사에 머물면서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어린이·청소년포교·소외지역 활동 돋보여

사찰음식·음성공양 들고 대중 속으로...

진력하고 있는 신홍사 청소년수련원장 성일 스님이 첫손에 꼽힌다.

나날이 그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분야는 ‘천성산 지킴이’ 지음 스님(내원사)과

불교환경연대 생태조사연구실장 법천 스님이 대표주자 격이다.

문화분야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선재 스님과 정를 스님은 각각

누가 어디서 어떻게 뛰고 있는가

사람음식과 음성공양이라는 방안을 통해 대중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하고 있는 진명 스님은 방송을 통해, 보명·정명·지연 스님 등은 ‘연화꽃빛이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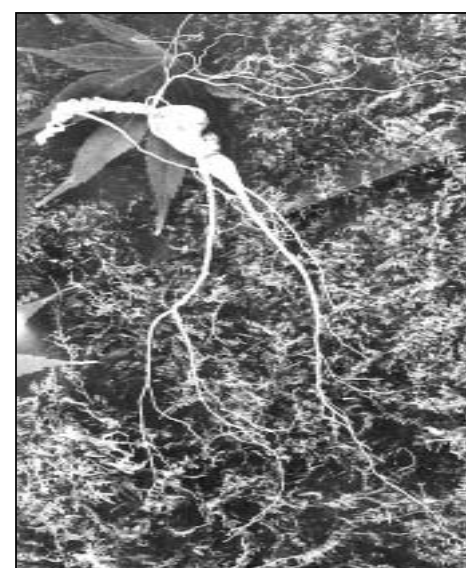
학계에서는 동국대학교에 혜주·혜원·계환 스님이, 중앙승가대학에는 본각·해도·능인 스님이 교수로 재직 중이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藥에는 上蔘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약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기증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體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품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 최대 오가피 제매자 성 광 수 씨

“수신토종 오가피 수신헌사토종 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친사할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헌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5300